

<립반윙클의 신부>와 <82년생 김지영>에 나타난 여성들에 대한 억압과
그에 대한 여성들의 대처 양상

지도교수: 손지연
2013102825 일본어학과
손지원

1. 서론

영화 <립반윙클의 신부>와 <82년생 김지영>이 세상에 나온 2016년, 한국에서는 문화계를 중심으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2016년 8월, 전진석 작가가 성추문으로 한국만화가협회에서 제명된 것을 시작으로 미술관 큐레이터 함영준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폭로, 배용제 시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 등이 이어졌다. 그리고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미투운동은 문화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되었다.¹⁾ 이처럼 미투 운동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던 한국과 달리 일본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2017년 10월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가 방송사 고위간부로부터 당했던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면서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지만 일본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가해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피해자는 “당신이 유혹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졌다.²⁾ 한국 사회와 일본 사회가 미투 운동을 바라보는 태도는 전혀 달랐던 것이다. <립반윙클의 신부>는 주인공 나나미가 일본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과 일본 사회를 이해하는데 좋은 작품이다. 우리 조는 수업 시간에 ‘집단주의’를 주요 테마로 하여 <립반윙클의 신부>를 <편의점 인간>과 비교 분석해 보았고, ‘보통 인간’ 신화가 지배하는 일본 사회에서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여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립반윙클의 신부>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사회적 억압에 대처하는 방식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한국 여성이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차별이 잘 드러나는 <82년생 김지영>과 비교해 볼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과 일본의 상반된 미투 운동이라는 시대상과 연관 지어 작품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1)오봉욱 / 「미투 운동(#Me Too)과 우리의 대응에 관한 고찰」 / 『교정복지연구』 제53호 / 2018 / p.75.

2)오사와 기미코, / 「2018년 세계 여성의 날과 미투 운동 in 일본」 / 『젠더리뷰』 / 2018 / p.64.

2. 본론

① <립반윙클의 신부>와 <82년생 김지영>에 나타난 여성 인권의 실태

<립반윙클의 신부>에 비친 일본 사회는 화려하다 못해 사치스럽다. 도쿄 거리는 네온사인 불빛으로 가득하고 수많은 행인들은 쇼윈도에 진열된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앞을 무심하게 지나쳐 간다. 영화속 도쿄의 거리는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 경제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최근 일본의 상황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나미와 마사로는 이처럼 아름다운 도쿄 거리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고립감을 느낀다.

사람들은 정말 많고 많네. 이 중에서 한두명 없어진다고 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거야.

— <립반윙클의 신부> 01:28:16 마사로의 대사 중에서

마사로를 만나기 전, 나나미는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마지막 날, 그녀는 학생들로부터 꽃다발을 받는다.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나나미는 ‘해고된 비정규직 교원’이 아니라 ‘고토부키타이샤(壽退社)’하는 여자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고토부키타이샤는 ‘경사스러운 퇴직’이라는 뜻으로, 일본 여성들이 결혼 후에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결혼 문화를 말한다.³⁾ 최근에는 일본 경제가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결혼 후에도 일을 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데 저임금·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다고 한다.⁴⁾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베 정권은 겉으로 여성의 취직을 환영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여성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성 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무관심 속에서 일본은 2017년 OECD 유리천장지수 최하위를 기록하였다.⁵⁾

마사로는 나나미에게 자신이 배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사실 AV 배우 일을 하고 있다. 일본은 대표적인 포르노 합법화 국가로, 포르노 산업은 꾸준히 확대되어 2016년의 경우 그 규모가 4000억~5000억 엔에 달했다.⁶⁾ 마사로의 어머니는 AV 배우가 되겠다고 한 딸을 때렸다고 말하지만, 포르노 산업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포르노 산업을 배우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여성의 몸을 상품화 되어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일본 여성 인권의 실태인 것이다.

잃어버린 20년이 끝나고 일본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의 ‘비정규직’, ‘AV 배우’로 대변할 수 있는 참혹한 여성 인권 실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제 <82년생 김지영>을 살펴보자. 김지영은 여성 지원자들에 대한 차별 속에서 중소기업에 어렵게 합격하지만 ‘여성이 일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립반윙클의 신부>의 나나미처럼 해고당한 것은 아니지만, 김지영은 결혼과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3) 윤종채 / 「전업주부 감소」 / 『무등일보』 / 2014. 6. 20

4) 임소연 / 「“일본 ‘위미노믹스’, 성평등은 없고 성장주의만 있어”...한국 반면교사」 / 『이투데이』 / 2018. 8. 30

5) The Economist Home Page, 3 March 2016,

<<https://www.economist.com/blogs/graphicdetail/2016/03/daily-chart-0>>

6) 박은하 / 「또 하나의 폭력 일본 AV산업...‘위안부 책임 외면 부추겨’」 / 『경향신문』 / 2017.10.08

대표는 업무 특성상 **일과 결혼생활, 특히 육아를 병행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여직원들을 오래갈 동료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다고 **사원 복지에 힘쓸 계획은 없다**. 못 버틸 직원이 버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보다, **버틸 직원들을 더 키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대표의 판단이다. (중략) 당장 눈에 보이는 **효율과 합리**만을 내세우는 게 과연 옳은 걸까.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는 결국 무엇이 남을까. — <82년생 김지영> 123p

이 장면에서 김지영은 효율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 여성들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을 비판한다. 육아는 여성이 맡아야 한다는 사회 풍조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제도가 미비한 현실이 한국 여성들이 일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늘리고 기업의 보육시설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제도를 실시하여 올해 아이를 낳은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여성의 비율이 70%를 넘어섰다.⁷⁾ 한국의 경우 아이를 낳은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여성의 비율은 58%로, OECD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⁸⁾

또, <립반윙클의 신부>에서는 AV 배우로 일하는 마시로를 통해 일본 여성 인권의 실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면, <82년생 김지영>은 몰카 사건, 성추행 사건 등을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김지영의 시점을 통해 여성이 성폭력에 취약한 한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95퍼센트가 여성인데, 신고율은 10%에 불과하다고 한다.⁹⁾ 여성은 피해 사실을 알린 이후에도 신상 정보가 노출되거나 일을 그만두게 되는 등 2차 피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증거가 부족해 피해자 여성이 무고죄로 고소당하게 된 사례까지 있다고 한다.¹⁰⁾

<82년생 김지영>은 일하는 여성으로 살아가기 힘든 한국의 현실과 여성이 성폭력에 취약한 한국의 여성 인권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두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사회 속에서 받는 고통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②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②사회 속에서 받는 고통에 대한 여성들의 대처 방식

<립반윙클의 신부>의 주인공 나나미는 수업 때 마이크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친척이 2명 밖에 없고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는다. 나나미는 그러한 탄압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나중에는 탄압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결혼식에 하객을 고용하여 친척 수를 속이기도 하고, 교사직에서 해고를 당했지만 자진해서 그만둔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나나미의 거짓말은 모두 탄로 나게 되고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게 된다.

당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나나미의 거짓말은 그녀의 소심한 성격이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나나미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된 맥락이다. 결혼식에서 나나미는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다. 결혼식은 잘 짜인 각본대로 엄숙하고

7) 조승희 / 「日, '육아하며 일하는 엄마' 비율 70% 넘어서」 / 『YTN 뉴스』 / 2018. 07.21

8) 박영준 / 「일하는 기혼여성 10명 중 4명도 '경력단절' 경험」 / 『세계일보』 / 2018.12.01

9) 김성민 /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기념 정책세미나 열려」 / 『여성 소비자신문』 / 2018.12.01

10) 전재용 / 「명예훼손·무고죄...2차 피해로 두번 우는 '미투'」 / 『경북일보』 / 2018.11.26

성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만약 나나미가 그 자리에서 “나는 교사가 아니라 해고당한 비정규직 교사예요”라고 외친다면 남편과 하객들은 모두 얼어붙은 채 나나미를 쳐다볼 것이고 성대하게 진행되던 결혼식은 어색한 분위기가 될 것이다. 일본 사회는 나나미에게 ‘빛나는 여성’이 되라고 강요한다. 하지만 나나미는 빛나는 여성이 아니다. 결혼식장 밖에서 그녀는 해고된 비정규직 교사이고 촌스러운 빨데 안경을 쓰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소심한 사람이다. 거리의 화려한 풍경은 고개를 숙인 채 혼자 길을 걷는 그녀를 비참하게 할 뿐이고 결혼식장의 사치스러운 분위기는 나나미가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만들 뿐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빛나는 여성’이 되지 못한 나나미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탓하게 되었을 것이다. ‘내가 비정규직인 것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친척 수가 적은 것은 친척과 원만한 관계를 쌓지 않았기 때문이야.’라고, 나나미가 소극적인 성격은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빛나는 여성’과의 괴리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나나미는 결국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한 채 낯선 도쿄 거리에서 길을 잃게 된다. 그리고 우연히 마시로라는 여성을 알게 된다. 마시로를 만난 나나미는 자신을 진정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소통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는다.

이 대목에서 나나미가 마시로를 만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나나미는 남편과 이혼한 후에도 자신을 이용하고 있는 아무로에게 의존한다. 나나미는 마시로를 만난 결과 살아갈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지만 나나미를 억압하는 사회 구조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그녀의 생활이 나아질지는 미지수이다.

마시로는 자신을 배우로 소개하는 등 AV 배우로 일하고 있는 것을 숨긴다. 마시로는 AV 배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암과 사투하며 일을 계속한다. 마시로의 투철한 직업의식은 AV 배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월세가 비싼 집에 살면서 화려한 웨딩드레스까지 즉흥적으로 구매하는 그녀의 사치 행위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마음은 엉망진창인 여성의 내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82년생 김지영>의 김지영도 사회속에서 차별이나 부당함을 느낄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입을 닫아버린다. 선배에게 “씹다 버린 껌”이라는 막말을 들었을 때에도, 거래처 남자가 치근덕거리려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지영은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의 제도와 인식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사회적 편견에 맞서는 여성들에게 공감을 느끼고 자신에게 가해지는 억압에 대해 분노할 줄 안다. 이 점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나나미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김지영이 사회에서 겪은 불만은 쌓이고 또 쌓여 나중에는 병이 된다. 그녀는 병의 증세를 보이며 자신의 주변 여성들이 사회에서 겪었던 부당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김지영 씨는 한 번씩 다른 사람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죽은 사람이기도 했는데 모두 김지영 씨 주변의 여자였다. 아무리 봐도 장난을 치거나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지는 않았다. **정말, 감쪽같이, 완벽하게, 그 사람이 되었다.** — <82년생 김지영> 165p

김고연주 작가는 이러한 김지영의 증상이 “김지영을 위한 여성들의 연대행위”라고 해석했다. 말하지 못하는 김지영을 대신해 이 여성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김지영의 증세는 독자들을 향한 간곡한 호소라고 할 수 있다. 김지영은 독자들에게 자신처럼 당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라고, “미투”를 당당하게 외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3. 결론

한국과 일본 여성의 인권 실태는 모두 심각한 수준이다. <립반윙클의 신부>의 ‘비정규직 여성’, ‘AV배우’라는 소재를 통해 잃어버린 20년 후의 경제 호황 속에서 여성의 인권은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82년생 김지영>을 통해 여성으로 살아가기 힘들게 하는 사회와 인식과 제도가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작품들 속 여성 주인공들은 모두 사회에서 억압을 받았으나 자신이 받는 억압에 대한 인식과 대처는 달랐다. <립반윙클의 신부>의 나나미와 미시로는 자신이 겪는 억압을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던 반면 <82년생 김지영>의 김지영은 여성을 차별하는 한국 사회의 인식과 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병의 증상을 통해 독자들에게 “미투”를 당당하게 외치라고 호소하게 된다.

지금까지 <립반윙클의 신부>와 <82년생 김지영>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사회의 억압과 여성들의 대처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여성들이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소설가 가와카미 미에코의 작품들 중 경제 불황기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불안한 심리를 그린 『젓과 알』(2007)을 <립반윙클의 신부>와 비교하여 분석해 본다면 현대 일본 여성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4. 참고자료

1) 텍스트

이와이 순지 / <립반윙클의 신부> / 도에이 컴퍼니 / 2016년
조남주 / <82년생 김지영> / 민음사 / 2016년

2)논문 및 기사

오봉옥 / 「미투 운동(#Me Too)과 우리의 대응에 관한 고찰」 / 『교정복지연구』 제53호 / 2018 /
오사와 기미코, / 「2018년 세계 여성의 날과 미투 운동 in 일본」 / 『젠더리뷰』 / 2018 /
이혜승 / 「이와이 순지 영화에 나타난 젠더 표상」 /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018
김민걸 / 「현대소설의 젠더의식 연구— 82년생 김지영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018
윤종채 / 「전업주부 감소」 / 『무등일보』 / 2014. 6. 20
임소연/ 「“일본 ‘위미노믹스’, 성평등은 없고 성장주의만 있어”...한국 반면교사」 / 『이투데이』 / 2018. 8. 30
박은하 / 「또 하나의 폭력 일본 AV산업...“위안부 책임 외면 부추겨”」 / 『경향신문』 / 2017.10.08
조승희 / 「日, '육아하며 일하는 엄마' 비율 70% 넘어서」 / 『YTN 뉴스』 / 2018. 07.21
박영준 / 「일하는 기혼여성 10명 중 4명도 '경력단절' 경험」 / 『세계일보』 / 2018.12.01
김성민 /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기념 정책세미나 열려」 / 『여성 소비자신문』 / 2018.12.01
전재용 / 「명예훼손·무고죄...2차 피해로 두번 우는 '미투'」 / 『경북일보』 / 2018.11.26

4) 인터넷 사이트

The Economist Home Page(더 이코노미스트 홈페이지), 3 March 2016,

<<https://www.economist.com/blogs/graphicdetail/2016/03/daily-chart-0>>